

# ‘百濟말’의 뿌리찾기 20년

「百濟語 연구」낸 충남대 都守熙교수

지금 우리는 단일 언어를 쓰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古代 한반도에는 서로 계통을 달리하는 몇가지 언어가 있었다고 보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혹은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 사이에 言語差가 있었다고 해야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고 특수한 方言 같은 차이 뿐이었다고 보는 언어학자도 있다. 그 어느 쪽이 옳은지 단정을 내릴 수 있는 뚜렷한 근거는 아직 없다.

어쨌든 古代語의 연구는 단순히 우리말의 ‘조상말’(祖語)을 더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양상이라든가 민족이동의 뿌리를 캐는 열쇠가 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백제어의 ‘馬韓語 起源說’ 뒤집어

우리나라의 옛말-그중에서도 百濟語연구에만 지난 20년간 끈질기게 매달려온 都守熙교수(53·충남대 문과대학장·언어학)는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의 일부를 묶어 최근 「百濟語研究 1-前期語를 중심으로」(백제문화개발연구원)라는 책을 내놓았다. 이 책에는 그동안 都교수가 발표한 20여편의 연구논문 중 주로 백제 前期語에 관한 논문 9편(영문 3편 포함)이 실려 있다. 수록논문은 「백제 전기의 언어에 관한 제문제」 「백제 전기의 언어에 관한 연구」 「백제地名연구」 「백제前期語와 加羅語와의 관계」 「백제의 언어자료」 등.

“과거에는 백제어가 馬韓語에서 기원했다는 견해가 유력했었습니다. 그러나 백제는 史記에 의하면 BC18년 지금의 서울 근처에서 일어나서 서기 475년 熊津(公州)으로 도읍을 옮기기까지 약 5세기 동안 漢제에 도읍했었습니다. 한편 백제가 마한을 완전히 통합한 것은 근초고왕(346~375) 때의 일이라고 사학자들은 보고 있지요. 그렇다면 백제는 한반도의 중부지역에서 건국한 이래 상당히 오랜 기간을 마한과 共存하다가 前期단계부터 벗어나서 마한을 통합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일 백제어가 마한에서 기원했다면 한성시대의 500년 가까운 역사(특히 언어사적인)는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백제어는 고구려어나 마한가지로 扶餘系 언어에서 출발했고, 뒤에 마한어를 통합하면서 三韓系 언어로 바뀌었다는 것이 都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公州로

옮긴 뒤의 백제는 초기의 二重言語사회에서 單一言語사회로 변모했으나, 처음과는 다른 마한계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토착민의 언어에 제한 얘기일 뿐, 지배계층의 언어는 여전히 부여계의 언어였으리라고 都교수는 추정한다.

## “「地理志」 고구려地名은 백제語”

고대어의 연구는 주로 地名연구에서 출발한다. 신라어의 경우는 그나마 鄕歌가 전해지고 있으므로 비교적 쉽지만, 고구려어나 백제어는 주로 地名·人名·官職名을 근거로 추적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地名은 생명력이 끈질기서 토착성을 간직한 채 化石化하는 특질이 있어 고대어 연구에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

“예컨대 公州의 옛이름 熊津은 곧 ‘고마나루’의 한자표기인데, ‘고마’가 ‘곰’으로 굳어진 것은 이미 삼국시대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가령 「용비어천가」에는 ‘고마나라’로 나오는가 하면, 현지의 古老들은 지금도 공주를 ‘고마나루’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어 연구는 「三國史記」 地理志에 실려 있는 삼국의 地名이 주된 자료가 된다. 지금까지 고구려·신라어는 그런대로 연구되어 왔으나, 백제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기는 都교수가 처음이다.

“중래 고구려의 지명으로 알려져 왔던 한반도 중부지역의 지명은 대부분이 백제의 지명이라는 사실이 연구결과 확실해졌습니다. 중부지역은 고구려가 남침하여 백제의 北域을 장악(장수왕 63년, AD 475)하기 전까지는 고구려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요. 고구려가 중부지역을 점령했던 기간은 불과 77년간(476~553)인데, 그 짧은 기간에 일반 語詞가 아닌 피지배지역의 지명을 바꾼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하와이·와이키키 등은 원주민의 지명을 英字로 표기하는데 불과하고, 캔터키·미시시피·인디애나·시카고 등은 원래 인디언의 지명이지요.”

결국 「삼국사기」 지리지의 고구려 지명은 편찬자 金富軾이 그러한 通時的 史實을 무시하고, 신라 말기 특정시기의 옛 고구려 版圖의 지명을 고구려의 지명으로 共時的으로 기록한 데서 빚어진 착오라는 것이 都교수의 논증이다.



앞으로 20년은 더 연구하겠다는 집념의 都守熙교수

그에 따르면, 경기·황해 지역은 원래 백제 前期語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고구려 점령시기에 고구려어가 加味되었고, 다시 신라가 北侵하여 백제의 故土를 점령(553~668, 115년간)하매 신라어의 요소가 가미되어

古代語의 연구는 그 시대의 문화양상이라든가 민족이동의 뿌리를 캐는 열쇠가 된다.

지난 20년간 백제어 연구에만 줄곧 매달려 온 都교수는, 오늘날 충청·전라지방의 方言에 백제어의 血痕이 남아 있다고 말한다.

백제 전기어는 한낱 方言으로 퇴색하고 말았다.

한편 공주·부여시대의 백제 말기는 앞서 말했듯 단일언어사회이면서도 지배족의 언어(부여계)와 피지배족의 언어(韓系)로 계층화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백제가 멸망한 후에는 신라어에 침식, 동화되어 방언으로 존재했었는데, 오늘날 충청·전라지역의 방언에 백제어의 ‘血痕’이 남아 있다고 都교수는 말한다.

## “加羅語·고대 日本語와도 친근”

“加羅語는 마한어와는 소원한 관계에 있는데 비해, 백제 전기어와는 매우 친근합니다. 백제 전기어와 가라어가 계통적으로 同族관계인지, 아니면 언어교류에 의해 자매성을 띠게 된 것인지는 아직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두 언어의 문법간에 유사성이 있다면 동족관계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語詞 수준의 유사성에 그치는 것이라면 언어교류라고 봐야지요.

또 백제 전기어는 고대일본어와도 상당히

친근합니다. 당시 수준높은 백제문화가 일본에 흘러들어가면서, 문화수용의 容器인 언어도 함께 流入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나라의 문화교류에 加羅語가 교량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어쨌든 都교수는 삼국시대 한반도 중부지역의 백제 前期 地名을 언어학적으로 일일이 고증, 그 분포상황을 상세히 지도 위에 밝힘으로써 당시 삼국의 版圖를 再構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고대사학계에서 정치사적으로 획정된 삼국의 판도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아뭏든 종래의 지명연구가 지도를 떠나서 이루어져왔던 데 비추어, 都교수는 백제 지명연구에서 ‘최초로 지도를 구체적으로 이용’했다는 데서 언어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金芳漢 「한국어의 계통」 p.109).

“사실 백제어 연구는 아직 황무지 상태이기 때문에 同學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무척 외로운 작업입니다. 자료 수집에 어려움도 많구요.”

그가 주로 이용하는 자료는 「삼국사기」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람」 「大東地志」 등 地志類와 고지도류 외에 한국·중국·일본의 각종 史書와 고문헌, 그리고 외국의 고지명연구 論著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都교수는 백제의 故土인 충남 連山 태생으로, 충남대 대학원을 나와 20여년간 충남대에만 줄곧 몸담아 온 ‘충남대의 터줏대감 격’이다. 77년 역시 「백제어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앞으로 20년은 더 연구하겠다는 집념을 펴보인다.

그는 이번에 백제문화개발연구원에서 펴낸 「백제어연구 1」에 이어 내년에는 제 2집을 내고, 그밖에 대우학술재단의 연구비로 이루어지는 「한국의 지명」도 완결지를 예정이다. 또 현재 경북대 千璣哲교수와 함께 작업중인 「언어학사전」도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지를 계획이라고.